

“ ‘뽕’ 은 체면치레를 벗어던진 음악”

한대음 4관왕 프로듀서 250

첫 번째 정규음반 ‘뽕’ 호평

새 음반 예정…6월 일본투어

“누가 들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만든 음반이 아니었어요. 저 혼자 듣고 좋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죠.”

지난해 일렉트로닉 음악계를 뒤흔들었던 음악 프로듀서 250(이오공)의 문제작 ‘뽕’의 탄생 배경은 의외로 평범했다.

250은 최근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사옥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도 좋아하는구나’라는 깨달음이 가장 컸다”며 지난해를 돌아봤다.

그는 ‘뽕’으로 이달 5일 공개된 제20회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올해의 음반’, ‘올해의 음악인’, ‘최우수 일렉트로닉 음반’, ‘최우수 일렉트로닉 노래’ 부문을 수상했다.

지난해 3월 공개된 ‘뽕’은 250의 첫 번째 정규 음반이다. 250은 자신의 첫 음반이 이토록 큰 호응을 불러일으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이 아닌 프로듀서라는 위치에서 음반을 내는 건 쉽지 않았다”며 “프로듀서의 개인 음반이 다른 플레이어의 퍼포먼스를 빌리지 않으면 어떤 음반이 될지 고민이 가장 컸다”고 말했다.

첫 정규 음반의 방향성과 ‘뽕’이라는 장르에 대한 고민은 7년이라는 긴 제작 기간으로 이어졌다. 그는 왜 첫 번째 음반의 주제로 ‘뽕’을 선택했을까.



프로듀서 250 /비스트앤엔터테인먼트 제공

250은 “첫 번째 음반이기 때문에 나의 시작을 다루는 음반이 돼야 했고, 내가 어떻게 음악하는 사람으로 시작했는지를 고민했다”고 답했다.

“뽕작은 제가 의식적으로 듣기 시작한 음악이 아니라 그 이전에 무의식 속에 스며든 음악이에요. 그 음악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제 첫 음반은 첫 번째 음악을 들었던 기억과 함께 가고 싶었습니다.”

“뽕”을 주제로 택한 후 250은 동묘앞 시장을 전전하기도 하고, 대표적인 트로트 가수 이복사를 만나는 등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등 ‘뽕’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아 나서기도 했다.

250은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듣는 것과 음악이 나에게 우연히 들릴 때까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다”며 “우연히 음악을 다가오는 순간, ‘딱 지금이구나’ 느껴졌던 순간들이 중요했다”며 7년의 제작 기간을 요약했다.

한국의 ‘뽕’을 찾는 과정에서 유사한 음악 갈

래인 일본의 ‘엔카’와의 구분도 필수적이다. 250은 “일본에서 엔카는 지켜야 하는 형식이 더 많은 일종의 클래식 음악”이라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한국의 뽕은 모든 형식, 혹은 어떠한 체면치레를 다 벗어던진 형태의 음악이 아닌가 싶어요.”

250은 ‘뽕’을 내놓기 이전에도 가수 보아의 ‘크리스마스 파라다이스’(Christmas Paradise), NCT 127의 ‘체인’(Chain) 등 K팝 곡과 래퍼 이센스의 ‘비행’을 작곡하며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선보였다.

자신의 곡과 다른 가수의 곡을 작곡할 때의 차이점을 묻는 말에 그는 “내 음악에는 스스로 싫어하는 내 모습까지 담아낼 정도로 솔직해지려고 한다”고 답했다.

“다른 K팝 곡을 만들 때는 ‘이런 노래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개인적인 좋고 싫음을 기준으로 음악을 만들 때도 그가 내놓은 K팝 음악은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가 작곡한 걸그룹 뉴진스의 데뷔곡 ‘하이프 보이’(Hype boy), ‘어텐션’(Attention), ‘디토’(Ditto)는 아직도 음원차트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250은 “뉴진스는 더 많은 인기를 누릴 것”이라며 “그들의 매력은 억지로 꾸미는 게 없는 자연스러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뉴진스의 성공은 제작 단계별로 정말 뛰어난 분이 함께한 덕분으로, 나 혼자만의 결과 아니다”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250은 이미 그의 새 음반도 제작에 들어가는 상태라고 귀띔했다. 아올러 오는 6월에는 일본 투어를 떠날 예정이다.

/연합뉴스

“어떤 단어로도 규정되지 않는 관계”

영화 ‘소울메이트’ 전소니

“관객으로 기다린 스토리”

배우 전소니가 연기한 영화 ‘소울메이트’ 속 하은은 잔잔한 호수를 닮았다.

언뜻 보기에는 고요하고 평온하지만 그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성격이 그렇다. 또 고향인 제주를 떠난 적도, 벗어나고 싶단 생각을 해 본 적도 없는 하은의 모습은 항상 그 자리에 가만히 자리 잡고 있는 호수를 떠올리게 한다.

최근 종로구 삼청동 한 카페에서 만난 전소니는 “하은의 대사 앞에는 ‘보다가’라는 지문이 유독 많았다. 정말 말을 고르고 골라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역할을 설명했다.

하지만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 하나가 표면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키듯, 하은의 일상 또한 조그마한 일에도 큰 변화를 맞는다.

전소니는 “하은이가 많이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점이 좋았다”고 회상했다.

“고민하고 망설이는 부분이 많다는 게 오히려 이 사람이 얼마나 삶에 열정적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는 미소(김다미 분)가 뜨거운 사람이라 할 수 있겠지만, 안에 품은 마음은 하은이도 못지않게 뜨겁거든요.”

오는 15일 개봉을 앞둔 ‘소울메이트’는 미소와 하은, 두 친구의 이야기다. 어린 시절부터 늘 함께해온 두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서 멀어지고 가까워지기를 반복한다.

전소니는 “어떤 단어로도 규정되지 않는 관계 같다”고 생각을 밝혔다.

“원작인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에서도 배역이 서로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저희 영화에도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두 인물은 그릴 수밖에 없는 역할이 아닐까 생각하게 됐어요. 서로가 바뀌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만한 배우들이 했을 때 완성되는 관계 성인 것 같아요.”

이어 영화를 찍으면서 상대 역을 연기한 김다미와 진짜 소울메이트가 된 듯한 느낌



배우 전소니 /NEW 제공

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정말 신기한 건 ‘소울메이트’를 찍으면서 우리가 뭔가 연결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저절로 영화 속 관계와 닮아가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김다미에 대해서는 “저에게는 가장 큰 파트너이자 소중한 또 든든한 친구”라며 “언제든 같이 연기할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전소니는 이 작품에 대해 “10대, 20대, 30대, 성별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투영하며 공감할 수 있는 것 같다”며 “저 또한 관객으로서 너무 기다렸던 스토리”라고 전했다.

“인물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영화가 항상 보고 싶었어요. 시간을 거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인물이 온 마음을 던져 그에 대해 고민하는 작품을 좋아하거든요. 어느 정도 일상성을 가지고 있어서 영화를 보고 집에 가는 길에 지나간 시간을 되새겨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해요. 미소랑 하은이란 진우(변우석)가 관객 여러분 마음에 머물러 남아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합뉴스

‘사이다 복수’ 약속 지킨 ‘더 글로리 파트 2’

작가 필력·배우 열연 호평

“용서는 없어. 그래서 그 어떤 영광도 없을 테지만” (극 중 송혜교 대사)

지난 10일 베일을 벗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 파트2가 약속했던 시원하고 강렬한 복수를 완성했다.

잔혹한 학교 폭력으로 몸과 마음에 찢을 수 없는 흉터가 남은 문동은(송혜교 분)은 피해자로서 빼앗겼던 영광과 명예를 되찾기 위해 용서 대신 복수를 선택한다.

괴롭힘의 대상을 구심점으로 뭉쳤던 가해자 무리는 쉽게 와해하며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문동은이 휘두르는 복수의 칼날에 하나들

속수무책으로 쓰러진다.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김은숙의 탄탄한 필력과 배우들의 열연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며 “밤새워서 결말까지 몰아봤다”는 평이 쏟아진다.

송혜교는 특유의 절제된 연기로 극의 중심을 이끌었고, 배우 임지연은 서서히 목을 조여오는 문동은 앞에서 다급해진 박연진의 광기 어린 모습을 표현해내며 보는 재미를 높였다.

내용이 탄탄한 조연 배우들의 연기도 작품에 힘을 실었다. 염혜란은 가정 폭력 피해자 강현남이 남편을 떠나보내고 느끼는 죄책감과 해방감 등 미묘한 감정을 섬세하게 묘사했다. 박지아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 정미희의 그 자체로 변신했다.

파트1과 2 사이 긴 공백 동안 쌓인 시청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갈아두었던 복선을 성공적으로 회수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김은숙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윤소희(이소이)의 죽음, 손명오(김건오)의 실종, 집주인 할머니(손숙)와 인연 등을 앞서 보인 단서와 연결 지으며 설득력 있게 풀어냈다.

작품은 피해자들의 연대를 더 비중 있게 담아내며 따뜻한 감성을 전하기도 했다.

“도와 달라”는 외침에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고통을 인내해왔던 문동은은 든든한 조력자 강현남과 주여정(이도현)을 만나 인생에서 놓치고 살아왔던 낭만, 여유, 우정, 사랑 등을 배운다.

/연합뉴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EBS
6:00 KBS 뉴스광장 7:50 인간극장 8:25 아침대장 9:30 KBS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동행 11:55 한식의 마음	6: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7:00 해 볼만한 아침 1부 8:05 해 볼만한 아침 2부 9:00 KBS 아침 뉴스타임 9:20 내 눈에 콩깍지® 10:00 인간극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오아시스®	6:00 뉴스투데이 1부 6:25 뉴스투데이 2부 7:50 매너의 게임® 8:30 생방송 오늘아침 9:45 기분 좋은 날 10:45 뽀뽀보 좋아좋아 11:15 헬로키키즈 체육교실 11:30 와썹 프리매직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뉴스와이드 2부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박스 8:50 좋은아침 9:55 SBS 10시 뉴스 10: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6:10 세계테마기행® 7:00 뽀뽀뽀 뽀로로 7:15 우당탕탕 은하인전단 7:45 뽀뽀뽀 뽀로로 8:00 당동당 유치원 8:20 출동! 슈퍼핑크 9:05 슈퍼두퍼 잉글리시 9:20 빅블루 10:10 한국의 둘레길®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12 12:10 다문화 고부열전 1:00 바닷가 사람들 2:45 한국의 둘레길 3:35 레전드 히어로 삼국전 4:05 영어 스토리 타임 4:15 페파피그 5:00 EBS 뉴스 6:00 미니특공대 브레인저스 7:00 미라클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12:00 KBS뉴스12 1:00 문화스케치 1: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2:00 KBS뉴스 2:10 필도법정 스페셜 2:30 이슈 픽 앤드 함께 3:10 이웃집 찰스® 4:00 사사건건 5:00 KBS뉴스5 5:30 동물의 왕국	12:15 오아시스® 1:30 세상을 건다 1: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00 KBS 뉴스타임 3:10 두리둥실 몽개공랑® 3:30 TV 유치원 4:00 세상을 모든 다큐® 4:50 생생정보	12:00 12 MBC 뉴스 12:25 앙코르 다큐프라임 1:20 글로벌 동물뉴스 1:55 2시 뉴스의전 3:55 기분 좋은 날® 4:55 5MBC뉴스 5:10 생방송 오늘 저녁	12:00 SBS 12뉴스 12:50 동상이몽2® 2:00 뉴스24평 4:00 좋은아침 스페셜 5:00 SBS 오뉴스 5:50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대한민국·중국	7:30 한국의 둘레길 7:50 인간과 바다® 8:40 세계테마기행 9:30 한국기행 9:50 EBS 다큐프라임 10:45 앳터사이클 다이어리 11: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1:55 클래식e
6:00 6시 내고향 7:00 KBS뉴스7 7:40 우리말 겨루기 8:30 내 눈에 콩깍지 9:00 KBS뉴스9 10:00 가요무대 10:55 더 라이브 11:30 뉴스라인	6:00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대한민국·중국 11:10 개는 훌륭하다	6:10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대한민국·중국 10:00 MBC 뉴스데스크 10:50 나 혼자 산다 스페셜	10:45 SBS 8뉴스 11:35 동상이몽 2	7:30 한국의 둘레길 7:50 인간과 바다® 8:40 세계테마기행 9:30 한국기행 9:50 EBS 다큐프라임 10:45 앳터사이클 다이어리 11: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1:55 클래식e

오늘의 운세	‘소원’ 연서연 선생 제공 010-5915-6875 ysy_wish@daum.net	3월 13일 (음력 2월 22일)
 子 9년생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라.	48년생 성급한 판단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60년생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마라. 72년생 한걸음 물러서 생각하라. 84년생	44년생 자신감을 잃지 말고 의사 표현을 하라. 56년생 과한 욕심은 금물이다. 68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80년생 인내심을 가져라.
 丑 85년생 밖으로 나가면 좋은 일 생긴다.	49년생 마음의 생각에서 벗어나라. 61년생 깊게 개입하면 불편한 사이로 이어진다. 73년생 눈높이를 조금 낮춰라.	45년생 자기 관리에 더 노력하라. 57년생 불필요한 생각에 불편한 마음이다. 69년생 시기 질투를 조심해야 한다. 81년생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여라.
 寅 르지 마라. 86년생 변화를 주지 마라.	50년생 변화의 기회가 주어진 다. 62년생 추진하기 전에 꼼꼼함이 필요하다. 74년생 조급한 마음에 손해 생기니 서두	46년생 노력하지 않아도 일이 풀린다. 58년생 가족 간에 지출이 생긴다. 70년생 감정조절을 위해 마음에 여유를 가져라. 82년생 두 배의 성과가 생긴다.
 卯 9년생 목표를 어려움 없이 달성한다.	51년생 안정적인 하루다. 63년생 혼란스러운 마음을 수다로 진정시켜라. 75년생 구설생기지 않게 말을 아껴라. 87년생	47년생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마라. 59년생 먼저 다가가라. 71년생 도와주는 인연이 생긴다. 83년생 작은 지출 습관에 차이가 미래의 부를 결정한다.
 辰 망설이다 기회 놓친다.	52년생 새로운 일에 흥미를 더해간다. 64년생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아문다. 76년생 일 마무리에 힘써라. 88년생	
 巳 89년생 불필요한 지출은 삼가라.	41년생 양손에 먹을 전 격이다. 53년생 재물 욕심 버리고 건강 생각하라. 65년생 능력 발휘를 맘껏 할 수 있다. 77년생	
 午 생 대화로 해결 방법을 생긴다.	42년생 주변의 친구를 무시하지 마라. 54년생 가벼운 고민 거리가 해결된다. 66년생 자신이 없으면 물러나라. 78년생	
 未 히 풀려나간다. 79년생 겸손을 잃지 마라.	43년생 건강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좋다. 55년생 자식들에게 안부의 전화로 기쁨이 생긴다. 67년생 하던 일이 무난	